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II

(시편 16:1-11)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구원 주 하나님,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피차에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1.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 된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5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고 분깃입니다. 성도의 재산목록 1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깃과 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분깃을 지켜 주십니다.

“내게 즐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6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격은 파탄 나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9절).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만족해 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쁘고 그 영혼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라는 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국가라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허리케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푹푹 보았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산업으로 삼는 사람은 영원히 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7절).

혼계해 주시는 믿음만한 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악해서 책망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책망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것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이며 자기가 진 것을 빨리 인정합니다.

영역성경에서는 ‘혼계’를 ‘counsel’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지도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와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7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것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이며 자기가 진 것을 빨리 인정합니다.

영역성경에서는 ‘혼계’를 ‘counsel’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혼계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혼계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8절) 라고 고백합니다.

2.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부활에 참여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10절)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면 현재에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미래에 받을 축복은 부활입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고 이 시를 썼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성령의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썼을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반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라”(벧전 1:10-11). 예언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

사를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고난을 받고 언제 어떻게 죽으시며 또 부활하실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예언한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부지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예언은 신앙의 논리 외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총명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11절).

다윗은 자신이 죽어도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성령론 학자인 Reuben A. Torrey는 등산하는 네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안내자와 등산객, 또 다른 안내자와 그와 함께 가는 등산객, 이들 네 사람은 모두 연결된 밧줄을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가파른 암벽을 오르다가 마지막 등산객이 실족하여 밧줄 헛딴었습니다. 이때 첫 번 안내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라서 이들 모두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음을 깨고 그의 밧줄을 큰 바위에 견고하게 매어놓으시므로 그와 연결된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예수님만 의지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설립 14주년 및 헌당 감사 14대 행사-

감사와 축제의 클라이맥스

교회설립 14주년 및 헌당감사 14가지 감사와 축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늘 저녁 5시에 그 10번째 행사인 젊은이들의 축제가 내일(21일, 월)은 일일선교대회, 그리고 수요일(23일)에는 대청소, 금요일(25일)에는 연합찬양대 찬

양 Festival, 그리고 토요일(26일)은 행사전야제가 각각 준비되어있다.

은 교회가 뜨거운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젊은이들의 축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서울교회 젊은이들이 드리는 찬양과 뮤지컬 한마당 잔치인 "젊은이들의 축제"가 열린다.

오늘 축제에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외에는 은빛찬양대가 찬조 출연한다.

일일선교대회

21일(월) 오후 2시 101호에서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파송을 목표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주일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선교비전을 함께하며 복음전파의 사명감과 결의를 다지는 일일 선교대회를 개최

한다. 선교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 후원을 담당할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요청된다.

연합찬양대 찬양 Festival

25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이중윤 목사가 작시하고 박정선 장로가 작곡한 칸타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를 우리교회 모든 찬양대가 연합하여 부르는 연합찬양대 찬양 Festival이 25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린다.

헌당의 기쁨을 온 성도가 함께할 이번 연합찬양대 찬양 Festival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이날 금요다락방 모임은 본 찬양 Festival로 대체된다.

헌당전야! 젊은이들이 노래한다

26일(토) 오후 5시 본당에서

교회 헌당 기념 전야제가 오는 26일(토) 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기도 할 이번 전야제는 대학부와 청년부의 젊은이들의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교회 행사 때마다 조금씩 선보였던 대학, 청년부의 찬양팀과 중창단, 율동팀이 모두 출연해 명실 공히 온 성도가 밝히는 축제의 밤이 될 예정이다.

헌당감사헌금을 군선교 위해 철책선 지키는 장병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을

27일(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하게 되는 우리 교회는 이날 드리는 헌당 감사헌금은 민족복음화를 위한 군복음화 운동 특별히 군선교 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는 "사랑의 온차(溫茶) 운동" 후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155마일 철책선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따뜻한 한 잔의 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헌당감사헌금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군선교에 값지게 쓰여짐에 서울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 뿌듯함을 느낀다.

도서실 개관 한다

23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 102호실에서

성도와 이웃주민에게 열린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이웃학생들과 주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도서실을 마련하고 개관 예배를 드린다. 교회 1층 102호실(미스바 홀)에 마련된 도서실은 21석의 간막이 식 좌석을 배치 공부도 할 수 있고 상단에는 서가를 꾸며 각종 교양도서를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한다.

도서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개방하고 주일에는 사랑방 교육실로 사용된 후 계속 열린다.

아울러 서가에 비치할 많은 책이 필요하여 책을 기증받고 있다. 가정에서 읽지않는 책은 사무국으로 기증해 주시면 된다.

2005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종강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식 가져

지난 주 2005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모두 종강을 하였다. 지난 10주간 성도들의 뜨거운 참여의 열기 속에 계속된 이번 열린프로그램에서는 총 157명의 성도들이 수료를 하게 되었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8학기 성경대학>

요한서신 (윤영국 목사)

위헌주 우경애 이금순 이정아 최미경 양호경 이순복 김희순 김보경 석상화 박길희 김유경 노명자 최은석 박 옥 이영미 유명석 조은식 주화인 교육자 김해중 백영란 박미경 전용순 박환영 안경옥 박순복 김진희 정진영 한경삼 지승연 이현미 박이선 김옥순 박윤옥 박미영 (36명)

마가복음 (이태훈 목사)

이화용 박찬미 방은주 이우진 이수정 김옥순 심심희 전수자 민마리아 한호선 오혜정 임송자 조근아 김정미 김지희 배금여 안경옥 김세원 박선영 박선미 주화인 김영진 배정자 장복순 김세희 김용혁 이소명 양미숙 조영만 송은진 송은선 김진희 노창훈 정승용 정유연 남태영 손서희 박창민 이윤미 홍혜진 이의수 (41명)

고린도후서 (이용식 목사)

김용혁 김미성 최정자 채혜숙 김옥순 정행자 이부자 박영자 (8명)

이사야 (한상은 목사)

김선미 김옥순 김용혁 김정희 노문환 서대식 이민화 왕경래 임옥근 장정화 전행자 조동환 조정옥 (13명)

교사양성반

강석조 고원순 김인숙 김준자 배금여 서한석 양미숙 이운영 이희국 진교남 한선현 박홍래 양정실 송혜숙 (14명)

교구일꾼양성반

주영도 안홍희 김영호 윤현미 문승순 이정임 김수정 김보경 손현순 이민숙 배옥선 (11명)

<주부대학> (4학기 수료)

이승복 유미영 진경남 최근자 이혜순 (5명)

<살름경로대학>(4학기 수료)

이동수 (1명)

<선교대학>

강승용 강아곱 강혜정 김연희 김원웅 김은태 김인수 김희정 문옥일 박두영 박병진 배준길 서경애 양정실 이규정 이상은 이영기 이은준 이은희 이재을 장인원 전광환 전기설 조범연 조상환 주한나 최형열 홍순복 (28명)
총인원: 157명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회

우리 교회는 수능시험 당일인 11월 23일(수) 오전 8시부터 702호에서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갖는다. 기도회는 수험생을 둔 부모와 가족,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가 모여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기도한다.

연당김사 14대 행사 - 초정찬양제

형제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따뜻한 지위로 좌중을 사로잡은 새문안교회의 새은찬양대



이날 설교 말씀 시편 150편과 맞춤 찬양을 한 영락교회의 갈보리 찬양대



서울교회가 도봉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소정교회의 배다니 찬양대



서울교회를 향한 하늘문은 열렸고, 이제 우리 모두는 신자가 군사 되어...

70인전도대

먼저 나 자신이 온전한 천국시민 되기를 바라며!

박정일 성도(14교구)



서울교회에 등록한지 꼭 1년이 되었고 설교말씀을 듣고 위로 받으며 따스하게 환영을 받으며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수 개월의 고심 끝에 등록한 이곳이기에 한 교회 식구들이 너무도 귀해 보이며, 돌아보면 제 자신부터 많이도 미숙하고 미성숙한 상태였음이 시간을 갖고서 볼 수가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하자 그간 장기 결석 중이던 다른 친지들과 주변에 알던 성도들도 저와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한 다락방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말씀을 공부하며 교제 하는 시간은 더없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새로 믿을 생활하거나 이동해 오는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돕고자 하는 새가족부양육과 돌봄 제도가 저의 지친 심신에 힘을 들어어

주었습니다.

8주 교육을 수료 후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주위의 권고로 전도학교 13기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전도실습을 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12주간 강의와 인근 아파트에서의 실습을 계속하며 전도하는 사람으로 어느새 점차 많아 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동안 아는 사람전도와 인근 상가 전도는 종종 했었지만, 이렇게 모르는 가정을 집을 이루어 꾸준히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며, 교회소개와 초청을 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도방법을 실습하며 선인 전도대원들의 열심과 노련한 전도방법과 주계로의 깊은 헌신에 늘 감격해 합니다.

평생 글고거 잘는 법을 알게 된 것일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실습 후 수료한 지금은 이제는 조장이 되어 소속된 특요축호전도팀에서 10시에 모여서 함

께 전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 받고서 조원과 같이 맡겨진 청실과 은마아파트로 나갑니다.

자신이 매우 담대해진 것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신앙경험 많은인 관사님들의 증보기도 속에서 저는 힘을 얻어서 16기 후배와 함께 나가며, 오늘 만나고 업무를 모를 영혼이 굶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갑니다. 아직은 주변에 알던 이들과 장기 교회 결석자들에게 집중해서 전도하고 있으며, 전도한 7가정을 위해 멀리까지 다락방 모임을 위해 가는 데 주력합니다만, 장치는 내게 가장 맞고 효과 있어 보이는 전도방법을 찾으며 훈련을 쌓아서 효과적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합니다.

지난날을 잊고서 오직 복음에 빛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자 대회 기간은 개인기도제목으로 '복음을 전하여 나와 주변이 온전한 천국시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만민에게 전도

42년 기도, 하나님 들으시다!



이영자 권사(89교구)

지난 11월10일은 저희 가족에 게는 매우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윤진 장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11년 되는 날이며 저의 42년간의 기도가 열매를 맺은 날이기도 합니다.

1963년에 고 유윤진 장로와 결혼하고 보니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유 장로와 저 뿐이었습니다. 시집을 온 이상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믿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집안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명절과 제사 있는 날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숙부님께서 종손인 유 장로 제사를 안자낸다고 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숙부님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대학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지만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하시고 제사를 못 지내면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숙부님이 미국에 유학중일 때 편지로 전도도 하였지만 신앙은 자유다라고 답장을 쓰시곤 계속 제사에 매여 계셨습니다.

남편 유윤진 장로는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황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숙부님의 큰아들이 유장로의 장례식을 보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숙모님 팔순 생신잔치에

서 자신의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숙부님은 자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숙부님께서 중한 병환에 놓이게 되어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수요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 기도 중에 대해 언급하시며 잠시 계속되다 사라지는 기도가 있는 반면 30년씩 계속되는 기도도 있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든 내 가슴에 와 닿는지 그 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자식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10일)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기뻐하십니까. 아버님이 마침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니 내일 꼭 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입에서는 아멘, 여호와와 승리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42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돌아서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한 가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명절부터 집안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속히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제 숙부님 소천 후에 기독교 장례로 치르면서 유족 문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지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부 추수 감사절 학부모 초청잔치

사랑부 개설 13주년과 추수 감사절을 맞아 은혜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랑부에 관심이 있는 신 분들과 2006년에 사랑부를 섬기실 분들에게서도 참석 하시어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2005년 11월20일(주일) 10:30~12:00
- 장소: 102호(사랑부)

중등부 친구 초청 잔치

11월 27일(주일) 오전 10시 중등부실(501호)

우리 교회 중등부는 11월 27일(주) 1부 예배 후 친구 초청 잔치행사를 갖는다. 사명자 대회 기간 작성하고 기도한 태신자와 그간 여러 이유로 중등부 성공공부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물론 잃은 양 찾기를 통하여 등록은 하였으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까지 초청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가 될 이번 친구 초청 잔치에 우리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만민에게 전도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박이선 집사(11교구)

남편 원용규 집사와 함께 저희 가정이 서울교회에 등록한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이 곳에 온지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 부부는 이 교회에 뿌리를 묻고 두 자녀와 함께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이 서울교회에 왔을 때는 대치동 예배당에 이미 입당을 한 후였는데 볼수록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며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을가를 자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헌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서울교회에 온 이후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매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지 않고 전하시는 이종운 목사님의 복음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복과 교회 곳곳에서 겸손히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복과,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70인 전도대원과 만나게 하신 복을 받았습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예배에 나오던 9월 어느 날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종운 목사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저희 가정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두 자녀가 성년이 되도록 저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찾아본 기억이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는 가운데 앞으로 세워질 '사랑의 집'에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

누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요 예배를 통해 비기독교 국가로 파송될 네 분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며 사탄의 공격은 또 얼마나 거셀지, 선교사님들이 파송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 것인지,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앞을 못 보듯 어려운 이웃과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 없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곧 헌당감사예배를 드리게 되니 서울교회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저로서도 정말 감격과 기쁨이 넘칩니다. 헌당 이후 펼쳐질 사랑의 집 건립, 선교사 파송, 70인 전도대를 통한 전도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이 거룩한 일에 두 자녀와 함께 우리 가정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국 시민 양성 - 1년을 돌아보며

옥토에 뿌려진 한 알의 씨앗이 되어



김용숙 권사(전 살롬권사회장)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살롬권사회장 직분을 주셨고, 많은 권사님들이 있었기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현당의 큰 기쁨을 앞두고 많은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참사랑을 증거하였고, 바자회를 통하여 하나되었고 전도와 찬양으로 빛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살롬권사회와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황정임 권사(전 권사회장)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05년도 권사회장직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권사회장으로서 재임 중 역사적인 현당을 하게되니 그동안 피곤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저만치 추억으로 아련해집니다. 또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배 후배 및 동료 권사들의 눈물의 기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해 권사회장으로 취임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즉각적인 복종자가 될 것과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될 것을 소망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데 우리 권사회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격적인 현당을 맞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침저녁으로 보살피고 행여나 비바람에 상처입을까 기도해주신 우리 권사회가 없었다면 미천하고 무능한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짧지만 올 한 해 권사회장으로 재임하며 앞에서 이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러 저를 지탱해주는 권사회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권사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아니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권사회는 아브라함, 아베스,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겸손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부족한 종이 2005년 한해 낙망하지 않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써주신 우리 권사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명자대회50일연속기도
-소외받은 자를 위하여

또 하나의 내가

이영숙 권사(사랑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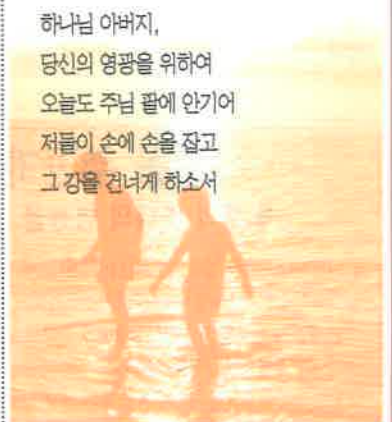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하얀 들꽃
꽃잎 떨구던 날
당신은 작은 키로 내려와
엄마처럼
저희를 심장 속에 들어와 계시고

꺼어진 언어
부서진 날개의
바람진 각도는
당신이 주신
순교적 몸부림인가?

울음덩어리
건너지 못하는 강
날마다 꿈속에서 다리를 놓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음성
사랑의 우뢰소리에
저들 영혼의 창이 열리고
육체 안에 잠자던
또 하나의 내가
한 움큼의 생명으로
파랗게 돌아나
우주를 진동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팔에 안기어
저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강을 건너게 하소서



멈출 수 없는 스테반의 열정



오형철 집사(전 스테반회 간사)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다음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 만나며 헤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뒷모습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뒷모습은 감출 수 없는 역사와 시간의 흔적들입니다.

일 년을 돌아볼 때 잘못된 것, 실수투성이의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빼고 일에만 열중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기 보다는 사람 앞에서 일한 것은 아닌지요,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불편함과 오히려 상처만 남겨준 것은 아닌지요. 일 년을 돌아보며 나의 뒷모습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니 그 위로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올 일년은 85세의 노구인 갈렐의 신앙을 본받아 멈추지 않는 꿈과 도전으로 모든 스테반 회원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다. 일년 동안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의 특성을 살려 월례회 때마다 꽃을 피웠으며 그 아름다운 조화로 스테반이 기도하며 꿈꾸던 그 험한 헤브론 산지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현당의 해를 맞이하여 다들 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일들의 아쉬움을 못내 남기고 앞으로 더 강하고 힘차게 기도하며 일하는 2006년 스테반들의 손에 드립니다.

내년에는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스테반의 손으로 형제를 서로 안아주고 세워주며 섬기는 스테반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6년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 명단

	지도교역자	회장	부회장
빌립 30-39	(66-75) 이성득	한선규	옥종호
안드레 40-44	(61-65) 이규정	김삼연	김삼연
베드로 45-49	(56-60) 이태훈	예완식	유기찬
바울 50-54	(51-55) 윤영국	오치열	진교남
엘리아 55-59	(46-50) 한상은	최광성	양춘경
모세 60-64	(41-45) 오정식	한충현	전광영
아브라함 65이상	(40이전) 이용식	순명근	김태기
도르가 30-39	(66-75) 이성득	최문주	송미자
루디아 40-44	(61-65) 이규정	김인숙	최종희
뵤뵤 45-49	(56-60) 이태훈	정미연	신선주
마리아 50-54	(51-55) 윤영국	최미아	김영식
에스더 55-59	(46-50) 한상은	신동기	남태순
한나 60-64	(41-45) 오정식	이인선	김숙자
사라 65이상	(40이전) 이용식	공진분	이규희

11월 성경통독자 시상

- <필사> 송금자 집사(11교구)
- <7독> 김경래 집사(13교구)
- <3독> 이갑연 집사(2교구) 송옥혜 권사(9교구)
- <2독> 이윤영 권사(5교구) 우스라 성도(12교구)
- <1독> 박상희 집사(미미연 권사(1교구))
- 김태기 장로 진영숙 집사 이현주 집사(4교구)
- 구기순 집사 김숙행 권사 함은희 권사(7교구)
- 배금여 성도 신혜영 성도(9교구)
- 김규성 집사(10교구) 왕경래 장로(11교구)
- 김광선 장로 김인순 권사 방승희 권사(12교구)
- 김미경 집사 윤용진 성도 정영애 집사 주동재 집사(13교구) 정미연 집사(14교구)

2005 사망자 24시간 연속기도자 명단 (11.20~26)

일시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11/20	주일	주일에 배																						
21	월	이정순 손태현 이영기	이영기 손태현 이윤영	김광준 손태현 이윤영 최치순	김광준 이연우 손태현 최치순	김이영주 손태현 최치순	홍순복 최영혜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전인화 원복순	홍순복 최영혜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이안순 박찬진 박우호
22	화	김세재 손태현 이영순	김세재 손태현 이영순	정동호 양정호 김재근	정동호 양정호 김재근	정동호 양정호 김재근	이은미 이두순	황정호 김경희	손성실 이은미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이은미 이두순
23	수	민순구 손태현 이영순 이영희	이관구 이영자 김의순 김영진	오형철 신재진 이태원 박광식	최홍금 오영철 박재우 이태원 이영희	오영철 신재진 이태원 박광식	최현인 이영순	이영순 김민희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김영숙 최현인
24	목	윤찬오 이영순	박우영 이윤영	손병식 박광식 김지용 박광수	손병식 박광식 김지용 박광수	손병식 박광식 김지용 박광수	김익환 송미정 최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김찬진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정우진 오영철 배유호
25	금	이안영 이영순	홍성주 정현애 최영진 이서희	최영길 김우 최치순	최영길 김우 최치순	최영길 김우 최치순	유근영 김주연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정차운 정영희 권은주
26	토	임준규 유미심 이영순 안경희	이민정 이윤영 리옥	최영열 김병용 김우	최영열 김병용 김우	최영열 김병용 김우	이순희 조영환	황정호 이순희 조영환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정원조 김병용 김우

현당준비 전교인 예배당 대청소

23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 101호실에 모여

현당을 준비하며 예배당과 교육실 등 모든 부서를 대청소 한다. 이번 청소는 교구별로 담당구역에 정해 맡은 부분을 청소하게 되며 교구장(간사) 책임 하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를 한다. 청소 후 담당 교역자의 확인을 받고 마무리한다. 단 702호는 22일(화)에 청소하기로 한다.

교구별 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교구명	교구장	교구간사	청소구역
1	박두영	윤영구/이인숙/안미경	본당 3층 및 로비, 베다니 홀(310호), 개인기도실
2	이복규	한주찬/이윤희	5층(501,504,505호)복도 및 로비, 화장실(남) 베란다(남)방향
3	정병규	김규경	5층(502,503,509,510호) 화장실(여)베란다(북쪽)
4	임훈구	유구태	8층(문나홀, 802호, 로비)베란다(남쪽)
5	성준경	이학명/남옥한	7층(701호)복도, 화장실(남), 비상계단
6	김세재	박정인/윤숙희	7층(705,706호), 화장실(여), 비상계단
7	이영기	김종윤/한성숙	7층(704호), 비상계단, 베란다(남)
8	홍성주	강낙홍/김정운	7층(702,703호), 비상계단
9	윤봉준	유신/박재숙	5층 화장실(남, 여), 베란다(남)방향, 북쪽
10	이관구	김재근/박연순	6층(602,603,606,609호), 화장실(여)
11	노문환	오치열/김일숙	6층(601,604,605호), 복도, 화장실(남)
12	김광산	최광성/위성남	101호(웨스트민스터홀), 102호, 104호, 로비, 화장실
13	조정식	조동완/이순희/김인숙	본당 2층 및 로비, 202호(바다), 외자, 찬양대석, 핸드벨서, 키켓
14	신용식	한광마/김진희	본당 4층, 로비, 402, 403호
사무국			외부 들계단

태신자 명단

강경자 강길순 강두영 강성열 강순희 경영민 고순희 고혜옥 권오근 권인락 권 장 권진우 권태용 김갑순 김경자 김광복 김동욱 김병오 김미숙 김봉수 김상환 김석우 김수경 김순경 김영일 김영주 김옥희 김은혜 김인철 김정숙 김정숙 김중만 김지연 김찬용 노경희 노영석 노중환 노희숙 마정숙 문선희 민대식 민상백 민재영마 박경리 박내길 박민정 박복순 박지원 박찬수 박태선 박한샘 배선희 석홍순 손현숙 신용숙 신찬식 신춘호 오재근 원용호 유영순 윤대병 윤상학 윤석수 이 훈 이금녀 이명옥 이병용 이상원 이상식 이승준 이승현 이연숙 이우정 이은재 이재욱 이종설 이창암 이하나 이항구 이해옥 이홍교 임상민 임순민 임현균 장덕영 장세록 장승구 장예리 장정남 전용덕 전용숙 전재규 전중수 정연대 정학자 정희순 조남진 조선행 조수일 주정주 진중용 진찬욱 차숙자 차영희 천수화 최광복 최명도 최영희 최해진 최희파 한원희 허서룡 홍영근 홍현우 황용택 황의례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4일(목) 복음신앙동지회, 25일(금)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이사: 장인수 윤도희 성도(7교구) 용산구 한남동 2동 T. 790-1298
안준홍 이창희 집사(5교구) 수원시 영통구 청명주공아파트 031)206-5268
- 개월: 안준홍 이창희 집사(5교구) LC논술학원, 수원시 영통구 영동동 로만스빌빌딩 5층 T. 031-206-2777
- 개일: 왕재용, 김진희 성도(11교구) '액세서리 전문 Shop'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내 T. 010-8369-3125
- 주간식당 봉사: 드르가전도회(11월20일) 루디아전도회(11월27일)
- 금주의 식사: 백정순권사 가정-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한정표·박명희 집사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며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비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망자대회 특별 새벽 기도회(14일-26일)에 큰 은혜 있도록
2.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3. 11월27일 현당성, 암송필사성경본헌, 선교사 파송, 장애인 전문대학·대안학교 설립이 은혜롭게 되도록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과 북한 땅의 신앙 자유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세탁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